

# 전윤철 감사원장 민주 후보로 나설까

10·25 해남·진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전윤철 감사원장이 민주당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참여정부 현직 감사원장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는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서도 민주당이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민주당 배기운 사무총장은 “해남·진도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로 전윤철 감사원장을 영입하기 위해 나름대로 공을 들이고 있다”며 “그러나 성사 여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배기운 총장은 “전윤철 감사원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된다면 민주당에서는 환영할 일”이라며 “4일이 해남·진도 보궐선거 후보 공모 마감일이지만 추가 공모 등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후보 선정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전윤철 감사원장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윤철 감사원장을 영입하기 위해 동향 관계인 한화강 대표까지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윤철 감사원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참여정부 현직 감사원장이 열린우리당 후보가 아닌 민주당 후보로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전윤철 감사원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설 경우 이는 열린우리당의 광주·전남지역 정치적 주도권 붕괴를 의미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물론 추후 정계개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기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 ■ 막으려 해남·진도 보선... 출마 누가 거론되나

### 韓대표까지 나서 영입 총력 성사여부 촉각 박주선·김봉호씨도 거론... 우리당은 인물난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원장이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다는 것도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해남·진도 보궐선거의 또 다른 민주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주선 전 의원은 출마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박주선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남·진도 보궐선거에 별다른 생각이 없다”며 “보궐 선

거 출마설은 억측”이라고 잘라서 말했다.

이정일 전 의원의 보궐선거 지원설과 관련, 박주선 전 의원은 “이정일 전 의원과 만난 적도 없다”며 “긴 안목의 정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주당 후보군으로는 김봉호 전 의원과 박현 광주고법 판사, 이승재 변호사, 김홍길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중앙 방송사 국장급 인사 및 거물급

법조인 등도 전윤철 카드 무산시 민주당 영입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인재 풀을 총 가동, 해남·진도에서의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이백만 후보수석과 박양수 광업진흥공사 사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민병조 전 국민자선신학 대표, 체일병 전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김흥래 전 행정자치부 차관, 박화강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도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4일 신안군수 보궐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뒤, 3배수로 후보군을 압축한 뒤 오는 10일까지 후보 선정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盧대통령 출국 노무현 대통령이 3일 오전 유럽과 미국 순방을 위해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유럽 순방 후 오는 14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 원로건축가 김석철교수가 말하는 '서남해안 오아시스'



전남 서남권 개발을 위해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S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계획) 등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학계의 원로 김석철 명지대 건축대 학장이 전남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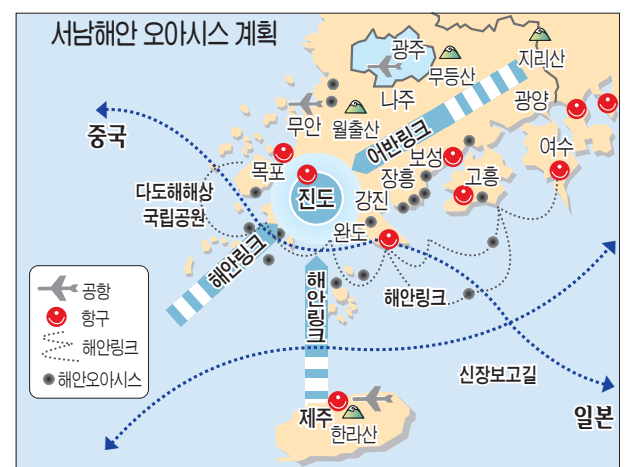
## 진도 중심 다도해~제주도 연계 동북아 최대 휴양타운 조성하자

원로 도시설계가이자 건축가인 김석철 교수의 '서남해안 오아시스 계획'이 바로 그것. 김 교수는 박정희 정권 당시 '여의도 마스터 플랜'을 비롯해 예술의 전당 등의 작품을 만들어 낸 건축계의 원로다. 지난 1일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 전시회를 갖고 있는 그로부터 서남해안 개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지방자립이 가장 어려운 곳이 호남지역이다. 하지만 이 지역 전체를 전부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호

화되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그는 “몇 십 년 전과 비교해 호남 인구의 3분의 1이 서울로 떠나 인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호남은 곧 망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 중국 사람들이 하루 목고 가는 관광이 아닌 사시사철 이용 가능한 휴양지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 교수가 구상하고 있는 오아시스

### 바닷길 네트워크 통한 경제권 형성 전남 역사·문화 특화도시 만들어야



해 적절한 위치에 3만~5만 인구의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즉 서남해안을 '휴양지'로 특화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신전지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관광도시로의 특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도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 많은 문화인들이 몰려드는 프랑스의 휴양도시 '니스'처럼 전남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도시를 형성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서남해안은 중국 동부해안과 일본 서부해안과 같은 라인으로 일본과 중국을 잇는 천혜의 지역”이라며 “진도를 중심으로 다도해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아시스 계획은 이 지역의 인구가 공동

계획은 아직 구체성을 띠고 있지 않다. 오아시스(거점)를 설치할 곳도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확한 재원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 을겨울쯤 연구 실사단을 파견해 현지 적합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아시스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지역의 균형 발전에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21세기 동북아시아를 향한 세계적 전략을 서남해안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김 교수의 구상은 주의 깊게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한편 김 교수는 현재 추진 중인 J프로젝트와 S프로젝트에 대해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등 선도사업의 성공을 통해 국제 투자를 끌어오는 것은 무모하다”며 “국제 투자가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마련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 與 ‘금품수수설 의원’ 처리 고심

### ‘바다’ 연루 의혹 당 자체조사 사실관계 규명 못해 남궁진 前장관 작년 안다미로 게임대회 대표 맡아

품을 전달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의원의 “그 보좌관이 민원인과 어울려 다닌다는 소문이 돌고, 이상한 느낌도 들어서 지난해 7월쯤 해직시켰다”면서도 “금품수수설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당은 수사권이 없고, 본인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당 지도부가 후속조치

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내 일각에선 진위 규명에 앞서 해당 의원의 상임위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품용 상품권 제도의 최초 도입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남궁진(사진) 전 장관이 게임업체 안다미로가 주최한 게임대회 행사에서 대표를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안다미로 등에 따르면 남궁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안다미로가 주최한 ‘펌프 잇 업’ 게임 세계대회 WPF(World Pump It Up Festival)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에 대해 남궁 전 장관은 “한국의 청소년 건전게임을 외국에 홍보하는 좋은 행사라고 초청받아 갔으며 김용환 대표의 인사를 받았다”며 “그 때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어렵잖이 연결되지만 최근의 사행성 게임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성인용 게임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관련 업계의 정치권 토비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연루의혹이 제기되는 의원들의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업체가 지난해 국회 문광위에 소속된 우리당 모 의원에게 8천만원의 부당이 가중되고 있지만,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선처리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와 관련, 당 사행산업대책위원회는 최근 이 의원을 직접 만나 금품수수설의 사실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했지만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상품권업체가 전직 보좌관에게 금

Advertisement for the 2006 International Photonics Exhibition (2006 국제 광산업전시회).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fiber optic cable and text in Korean and English. Key text includes: '세계인이 함께하는 국제 광산업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6 국제 광산업전시회', 'International Photonics Exhibition 2006', '2006. 9. 5 ~ 9. 8', 'KOREA 2006', 'APOC 2006',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committee.